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4호 현대불교
2008년 8월 27일(음력 7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저 나무들은 무조건 자기 뿌리를 믿고 살고 있어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도 스님 친견을 많이 한 편에 속하는데,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릇만큼 대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옆에서 제삼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릇의 크기보다도, 어떤 그릇은 작은데도 좀 예뻐하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똑같은 그릇인데도 찬물을 담아 주시고 그러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것은요, 맥의 마음이 이만 하다면 내 마음도 이만 하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맥의 마음이 바다와 같다면 나도 바다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지 않지 않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크고 작은 거지, 누가 크게 해 주고 작게 해 주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내느냐,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즉 말하자면, 사람 사는 상식으로 '이건 넘어 뭘 수가 없어.' 하는 관습 있지 않습니까? 그 관습을 뛰어넘으라는 얘기도. '관습은 없다' 즉 말하자면 습도 없고 번뇌도 없다, 불을 자리가 없다, 체가 없다. 그냥 점프해서 뛰어넘어도 그것은 뛰어넘는 사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현실로는 이렇게 계단이 딱딱 쳐서 있지만, 계단을 올라오셨죠? 계단이 딱딱 있어서 밟고 올라와야 올라오죠? 그런데 체가 없는 마음은 계단을 점프해서 올라와도 올라오죠? 바다를 건너가려도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 속을 들여다보려 해도 들여다보죠, 은산철벽을 뚫고 나가려도 뚫고 나가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광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모든 것을 포입을 해서 거기다 항상 같이 놔야 된다는 얘기도. 놔서 그것이 완전히 보일 수 있을 때에 이 모든 중생들도 다 화해서 공생이 되는 거죠. 공생, 공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생(共生) · 공심(同心) · 공체(共體) · 공용(共用) · 공식(共食)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어디는 못 가겠어요? 가고 싶은 데 다 가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론은 알았는데 진짜 보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여길 통하게 보이는데 여길 통하지 못하니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승 저승 볼 수 있고 밟고 가까움이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근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도는 아니지만 도와 겸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것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신통도 누신통으로 합해야 이게 도다, 이

런 말이죠.

질문자2(남)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반진 얘기지만요, 스님의 일등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까.

질문자3(남) 안산에 사는 심륜회 회원입니다. 스님, 항상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님, 지금 우리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림 · 최주현

스님 그래요. 아니, 지금 보니까 아는 얼굴인데, 공부 잘하네, 이제는, 하려고 하지만 한다면 왜 못하겠소, 응? 어차피 텔런트인데, 어차피 끝나서 막 내리면 그뿐인데, 그까지 것 던져버리지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달랑달랑하우? 하하하...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을 때 어느 형제는 머리로 기억을 하려고 하고요, 어느 형제는 귀로만 듣고 어느 형제는 가슴으로, 그러니까 즉,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머리, 귀, 가슴, 어느 이름으로 공부해야 바른 공부

가 될까, 질문 올립니다.

스님 그림 육신의 하나라도 떨어져 나간 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능이 하나만 없어져도 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육식(六識)이라는 말을 하죠. 그것도 이름이지만 말입니다. 그거를 나는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지막지하게, 어린애가 젓병 하나 들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그냥 그렇듯이, 그걸 붙들고 잡고 싶으면 잡고 그러듯이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아는 척하고 따지고 들면 오히려 이 무의 세계에는 근접도 해 보지 못합니다. 정신계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나중이고 무의 세계부터 이렇게 틀어막고 통해야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주장자, 즉 말하자면 스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自) 스승.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아리송할 때 진짜 거기가 되므로 되므로 하다가도 자기가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 나한테 물어라 이겁니다.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일일이 따지게 되면 언제 갑니까? 지금 같이 바빠서 점프하잖아요. 갈 길이 바쁘니까,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밟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점프해라 이거야, 그냥. '그냥 모든 걸 거기 놓고 들어가라. 그냥 밟고 들어가라. 물러서지 말라. 그냥 밟고 밟고 들어가라.' 이런 소리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은 모르고 아주 여유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짓지 않았을 뿐이지 그대로 행을 하고요 계산 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 아닌 행을요.

사회자 법행제는 아니지만 우리 금양지원의 스님들이 추천을 해서 금양지원 학생회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나왔습니다. 아아 여름수련회에서 느낀 게 많이 있어서 스님께 한번 여쭙고 보려고 오늘 질문서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질문자4(여) 저는 금양지원 학생회에 다니는 고 3 학생입니다. 스님 뵈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요. 여기 질문하러 오기 전까지는 되게 헛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스님 뵈고 나서 바로 정말... 여러 스님들께서 계속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묘법을 만났으니까 모든 걸 다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 왔어요. 그런 데 잠깐 제가 헛갈렸나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님 뵈는 순간 그냥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걸고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야겠

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요즘에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깊게 잘 안되고, 제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고 생겨났다 없어졌다 그런 것도 많은데 그냥 그거를 보게 되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뭐랄까, 너무 까마득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한순간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해져 오고 그런 거를 느끼고 그러거든요. 물론 계속 주인공한테 관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가지만 스님께 가르침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님 그런데 지금 걸음마도 걸지 못하고 자라는 얘기가 젓병 하나만 들면 됐지... 똥 누면 똥 치워 주겠다, 아니, 잡자리가 탁 있으니 그냥 잡자고 그러면 되지, 걸지도 못하는 아기가 뭘 그렇게 많이 많아? 그러니까 하하하... 무조건 믿어. 저 나무들이 무조건 자기 뿌리를 믿고 살고 있어. '너, 네 뿌리를 진짜로 믿고 사니?' 하고 저 나무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렇게 '진짜로 믿고 사니?' 하고 묻는다면 묻는 자가 어리석어. 그렇지? 그냥 뿌리는 이미 달려서 벌써 썩어 나사 살고 있는데 '너 뿌리를 진짜 믿니?' 이러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그렇지? 그런 것과 같이 너도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를 형성시켜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형성시킨 너부터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즉 말하자면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 봐! 그걸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은 다 소용없어, 이름이 좋든 그르든 말아야. 그러니까 '주인공' 하면 틀어막아 아닌 한 개체가, 몸통이 살고 있는 걸 말해. 그런데 고정된 게 없이 살고 있거든, 모두.

질문자4(여) 그리고요,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스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면, 산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탐덕 테스트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조가 길을 잘못 들어서 되게 오랫동안 산을 헤맸어요. 밤에, 9시 정도에 산에 올라갔는데 새벽 2시 정도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잠깐 꿈꾼 것 같고, 그때도 무섭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정말 믿을 거라고는 주인공 밖에 없었어요.

스님 잘했어. 정말 그렇게만 자주 해 나가면 일등 될 거야. 하하하...

질문자4(여) 그때, 정말 스님도 계속 찾고 주인

26면으로 계속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신심 | 239P 정가 10,000원 |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

“
자재로운 스승, 일타 대중사와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라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

제주 약천사 해인 스님의 신심, 원력 이야기

신심, 원력

설정 스님(덕총총림 수좌)_ 해인 선사가 평소애 실천궁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거기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짜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_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여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_ 장엄한지도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환히 트였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

전 언론이 격찬, 격찬 !!!

한국일보 오척 단구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났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지장이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 책에는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내용을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 해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엔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루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울리다 보면 108배를 넘어 140배, 150배가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 그가 평생 수행예사이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신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붙인 솜계 한다. 때론 배꼽을 잡게하는 솔직한 이야기로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돼준다. **국제신문** 해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설법 전하는 방식도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 왜 책 제목이 신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신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유는 하나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 해인 스님이 그간 걸어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운의 불기사의힘이 펴져서다. **법보신문** 책은 법문의 형식을 빌었지만 해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